

# 임실N치즈축제, 10월 개최

### 10월 6일 ~ 9일까지... 낙농·치즈·피자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국적인 국민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제3회 임실N치즈축제가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개최된다.

지난 해 관광객 21만명이 몰려 대성황을 이룬 임실N치즈축제는 올해 25만명 돌파를 목표로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의 명성을 이어갈 전망이다.

23일 임실군은 올해 임실N치즈축제는 추석 명절 직후인 10월 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일동안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다른 지역축제와는 차별화된 임실만의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와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축제 인프라 확보에 간간힘을 쓰고 있다.

군은 특히 최장 9일이 연휴가 예상되는 추석명절 기간과 맞물려 축제를 개최함에 따라 이 기간 '여행지로서의 임실, 축제로서의 임실'의 차별성을 적극 부각해 온가족이 함께 하는 관광객 유치에 시동을 건다.

축제의 주무대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와 치즈마을에서는 스위스풍의 아름다운 푸른 초원과 다양한 체험공간을 갖추고 '맛있고, 즐겁고, 행복한 축제' 컨셉으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 임실N치즈 유제품 판매장에서는 관광객의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고 소비촉진을 위해 전제품 20% 가격할인 행사를 마련한다. 치즈떡볶이 나눔행사를 통해 참여자에게 무료 시식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치즈를 이용해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와 낙농체험·치즈체험·피자체험은 물론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우와 향토음식 등 농특산물을 판매도 확대한다.

국화꽃 전시는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백미 중 하나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국화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꽃들을 전시한다.

임실군의 자랑인 임실치즈체험관광은 낙농업(우유)과 치즈, 치즈체험관광으로 이어지는 관광시스템을 구축

하며 농업의 6차산업화의 표준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또 치즈마을은 마을 주민 중심의 치즈마을운영위원회를 조직 공동체 중심의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군은 지난 해 성공적인 축제개최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약 200억원이 넘어선 만큼 올해도 경제적 효과가 높은 문화관광축제로의 명성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한편 임실군은 국내 최초의 치즈 박물관 50년의 치즈 제조기술과 스토리가 있으며 치즈와 연관된 다양한 산업이 특화돼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임실치즈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치즈산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2015년부터 임실N치즈축제를 대표 축제로 지정 개최하고 있다.

치즈·피자체험예약은 임실치즈마을(<http://cheese.invil.org>, 063-643-3700), 임실치즈테마파크([www.cheesepark.kr](http://www.cheesepark.kr), 063-643-2300)로 연락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취약계층 난방시설 무상점검

### 250가구 대상 가스 안전차단장치 보급사업 진행

순창군(군수 황숙주)은 올해 취약계층 150가구를 대상으로 난방시설 무상점검 과 250가구를 대상으로한 가스 안전차단장치(타이머 폭) 보급사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노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를 취약계층들은 경제적 문제로 보일러 등이 고장이 나도 제때 수리를 받지 못하거나 가스공급시설이 열악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실정이다. 가스 가스안전 차단장치인 타이머 폭은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스밸브가 차단되는 장치로 고령 독거노인 층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군은 이날 31일까지 면에서 추천한 대상자를 확정해 사업 추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비는 1,300여만원을 투자하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가스 안전공사 전북본부가 참여해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따뜻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에너지공급 시설에 대한 대대적 점검과 교체작업에 나선다. 에너지 공급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보일러 무상점검과 노후부품 교체사업도 추진한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전북도회와 업무협약을 추진해 계획단계부터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5월까지 사업자 선정에 마무리 하고 6월부터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전문가들이 점검과 교체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공동주택 지원 사업 확대 추진

임실군은 노후화된 공동주택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사용검사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로포장, 보안등 설치, 옥상 방수공사 등 공용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금이 지원되며 올해는 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사업비가 확대됐다.

군은 건축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임실읍, 관촌면, 오수면에 소재한 3개 단지(190세대)를 선정해 총 9천만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해빙기, 동절기, 우기 등 대상시설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 빈집정비 보조금 지원 등 노후?불량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방치된 농촌주택 철거를 지원하는 빈집정비사업을 비롯해 낡고 노후된 지방 개량을 지원하는 지방개량사업 등을 통해 주거복지 실현과 정주요역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우체국 돌보미 서비스 업무협약

### 고창군청 - 고창우체국, 복지서비스 제공기로

고창군청(군수 박우정)과 고창우체국(국장 유재운)이 홀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23일 고창군청에서 박우정 군수와 유재운 국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체국 돌보미 서비스(Post Care Service)'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체국 돌보미 서비스'는 장애인 등 우체국 직원이 농촌지역

홀로 어르신들을 주 2회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거동상태, 안부확인, 말벗되기, 애로사항 수령 등을 하고 그 결과를 자녀에게 알려주는 신개념 생활복지서비스다.

양 기관은 대상자 발굴과 홀로어르신 방문 안부 확인 등 관리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없는 고창군 만들기에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순창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태조사

순창군이 올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최저생계보장수준이 인상에 따라 대상 주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군은 4월말 까지를 신규 수급자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대상자 등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구를 사물레이선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을 찾아 신청 안내를 진행한다.

앞서 순창군은 지난해에 실직, 질병,

장애, 가족해체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가구에 대해 다양한 접근과 사례관리 등을 통해 108가구의 신규 수급자를 발굴하여 지원하였고, 기준초과로 중지되었으나 실제 생활실태가 어려운 347가구에 긴급지원 등 서비스 연계 지원을 실시해 군민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거부나 기피로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120가구에 대해서도 순창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제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온실가스 감축 운동 녹색아파트 사업 시행

남원시는 온실가스 감축 운동 확산을 위해 녹색생활 모범 아파트인 '2017년도 녹색아파트 사업'을 시행한다.

녹색아파트 사업은 인구 밀집 지역인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실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남원시에 선정된 녹색아파트는 부영5차아파트, 금동 휴먼시아아파트, 노암주공아파트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녹색아파트 사업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운영되며 녹색아파트 주민들은 가정방문 에너지 진단 컨설팅을 통해 낭비되는 대기전력을 잡고 실생활에서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실천방법을 통해 녹색생활에 참여할 수 있고, 녹색생활을 실천하며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주민교육과 나눔센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지역 소식통

## 전주지검 남원지청-법사랑위원 남원지역연합회 정기총회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김영기)과 법사랑위원 남원지역연합회(회장 양해춘) 2017년도 정기총회가 최근 춘향문화예술회관 소 공연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 지청장은 개인유리창을 복원하는 지역의 파수꾼이되어 지역발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법사랑위원 여러분의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래의 꿈나무인 모범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전달하는 작은 배려속에 따뜻한 사랑과 희망을 전달했다.

한편 남원지청과 법사랑위원 남원지역연합회는 지역의 발전과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 등을 처리하는 통합정책위원회를 발족하여 시민들의 안전된 생활과 불편함을 해소하는 신고체계를 확립하여 관련 행정관청에 의뢰하여 사회악을 척결하는 모범적인 단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강조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고창문화원, 가족오케스트라 공모사업 선정

고창문화원(원장 송영래)이 한국문화예술포럼진흥원이 주관하는 '가족오케스트라·합창' 운영기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고 23일 전했다.

고창문화원은 이번 공모사업에 문화예술포럼진흥원의 일환인 '2017 꿈의 오케스트라'에 이어 연이어 선정되면서 관공리의 고장인 고창군에 전통음악과 더불어 서양음악도 보급하게 되어 문화예술포럼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족오케스트라·합창'은 주 5일제 수업으로 학교에 가지 않는 토요일에 실시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초·중학생과 가족이 함께 하는 활동이다.

고창문화원 가족오케스트라는 참여 가족들에게 토요일에 함께하는 문화예술체험 기회와 건강한 여가문화 활동 제공을 우선으로 가족과 세대 간 화합을 위한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 또래 간 음악교류의 장을 조성해 정서순화와 재능발견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악기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오케스트라 활동 지원과 음악회 및 문화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 비용은 무료이며 고창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오는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

**여기행이나 갈까?**

**관촌 사선대**  
2천년전 네 신선과 네 선녀의 전설을 간직한 사선대는 조각공원 및 체육시설과, 청소년수련원, 인조잔디구장을 갖추고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천담 구담마을**  
섬진강 강변과 산이 어우러져 한쪽의 수채화를 담아 낸 듯한 마을로 포장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옥정호 순환도로 드라이브길**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전국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이 길은 수목산수화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옥정호 붕어섬(외얏날)**  
호수 속에 있는 신비로운 섬! 사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봄과 가을에는 물안개로 풍경이 절정에 이릅니다.

**임실군**